

렌즈 속 심연의 수중세계 ‘푸른바다 은하수’

40년 경력 정우성 사진작가 개인전

내달 13일까지 예술의거리 달정원
필리핀 해안에서 다이빙 사진 작업
물고기 떼 그림같이 신비로운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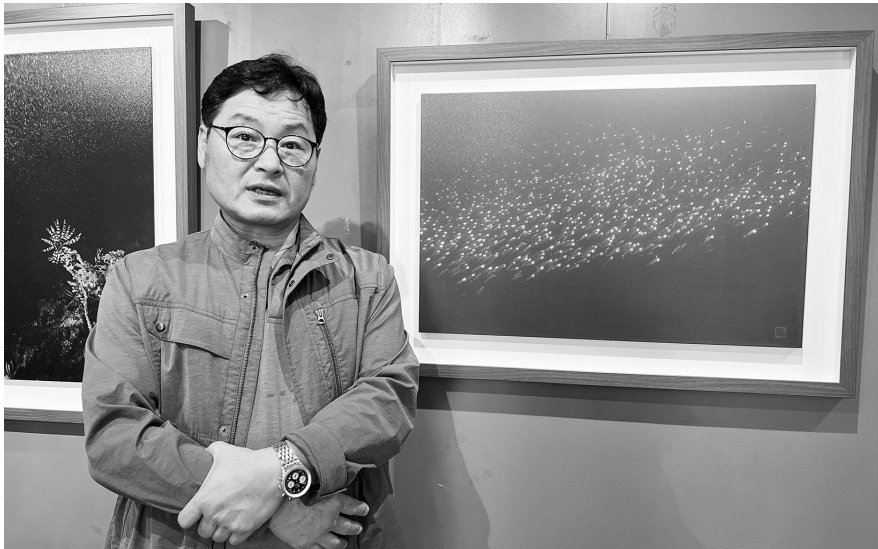
사진일까? 그림일까? 푸른 심연의 풍경이 신비로운 감상을 이끈다. 켈할 정도로 파란 색감의 바닷속에서 물고기 떼들이 검은 별처럼 빛나고 물결은 붓의 결처럼 일렁인다. 40년 경력의 아마추어 사진가 정우성 작가가 렌즈를 통해 바라본 수중세계다.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카페 달정원에서 제3회 정우성 사진전 ‘푸른바다 은하수’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푸른바다의 심상을 담아낸 사진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그가 필리핀 보홀 발리카삭 섬, 민도르 섬 등에서 다이빙을 하며 작업한 것들이다. 그는 2015년 오십 중반을 넘어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굵어진 고개가 넘어가는 함평 밀재의

풍경을 수려하면서도 고요한 빛과 함께 렌즈에 담은 그의 작업세계가 더 넓어진 순간이다.

정 작가는 매년 필리핀으로 향해 다이빙 스폿을 찾아 유명했다. 낯선 풍경들이 마음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똑딱이 소형방수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몸이 바다에 익숙해지자 수중 하우징(기계의 부품이나 기구를 싸서 보호하는 틀)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장착하고 촬영을 시도했다. 물고기들의 군무를 감상하고 도도한 바다거북이와 눈을 마주치며 찍은 사진들이 어느새 수천 장 쌓였다.

중년의 몸으로 깊은 바다의 수압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 작가는 “수압 때문에 만성 중이염에 시달리곤 했다. 한번 들어가면 50분 정도 바다에 머물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이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며 “나이 한계 때문에 앞으로 다이빙 사진 작업을 더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남아있는 사진들이 더 소중한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우성 사진작가가 개인전 ‘푸른바다 은하수’를 오는 11월 13일까지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달정원에서 선보인다.

그냥 다이빙도 위험한 작업인데, 정 작가의 경우 7kg에 육박하는 사진 장비들을 엮고 들어가 체력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사진작가 눈 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세계는 외면할 수 없는 유혹과 같았다. 그는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끝이 어딘지 모를 우주를 만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진전의 제목도 ‘푸른바다 은하수’로 지

었다.

이 사진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연은 하나 더 있다. 정 작가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다이빙 사진 작업은 지난 8월이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땀기열에 감염된 것이다. 심한 고통을 느꼈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 치료와 검사를 받던 중 병원에서 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한 것이다.

이후 정 작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는 심란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미뤄왔던 사진 정리를 시작했다. 내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슬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진이 얼추 추려지자, 어쩌면 생의 마지막 전시 기회일지도 몰라 바닷속 풍경 위주로 전시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정상’이었다. 땀기열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상교란이었던 것. 정 작가는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다. 새생명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며 “사진 하나하나가 더 아름답고 소중한게 다가왔다. 이번 전시가 나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파킨슨 환우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이다. 그는 “올해 광주사진동호회 회장을 맡게 됐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진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회원들과 함께 광주에서 눈길아 닿지 않은 오래된 곳을 기록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구남컬렉티브 초대전 ‘시간의 틈’

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영화적 풍경 같은 연출 눈길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신세계미술제 역대 대상작가 중 한 팀인 구남컬렉티브의 초대전 ‘시간의 틈’을 오는 29일까지 연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부터 공모전 ‘광주신세계미술제’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작가들에게는 상금과 초대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남컬렉티브’는 설치 및 영상 작업을 진행해 온 김영남과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이는 구혜영 작가가 2019년 결성한 팀이다. 이들은 영상과 퍼포먼스는 물론 회화, 조각,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고 있다.

구남컬렉티브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작품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현상이

든, 의식이든, 자아와 타자를 인식하고 그 극단의 간극을 경계로써 바라본다. 구남컬렉티브는 이것을 ‘사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본인들만의 예술 언어로 전달한다.

전시 ‘시간의 틈’은 차이를 만드는 경계로서 ‘시간’에 주목한다.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몇 개의 공간으로 분리한 공간들을 오가게 된다. 영상과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침대와 전화부스처럼, 갤러리에서 만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자리한 공간은 연극적이고 영화적 풍경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제24회 미술제에서 구남컬렉티브의 작업은 “환경과 생태라는 주제 의식의 무게, 이를 풀어가는 다양한 방식에서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확장해 간다”고 평가를 받으며 대상 작가로 선정됐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에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 가능하고 오는 21일은 백화점 휴점일이다.

도선인 기자

“문화누리카드로 한강 작가 도서 구매하세요”

광주 서점 10곳서 이용 가능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광주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작가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서점)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서점은 △책과 생활(동구) △소년의 서(동구) △충장서림(동구) △알라딘 중고서점 충장로점(동구) △영풍문고 터미널점(서구) △교보문고 상무센터(서구)

△알라딘 중고서점 상무점(서구) △에림문구(남구) △러브앤프리(남구) △용봉서적(북구) 등 10곳이다.

현재 서점에서 판매하는 한강 작가 도서는 각각 다르며, 품귀 현상으로 수시 재고 확인을 통해 예약해야 구입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남은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금 13만원을 전액 소진해야 한다.

박찬 기자

ACC재단, 지역 창작자와 함께 ‘마켓 니어 디어’

19~20일 ACC 광장 일대 등
푸드·생활소품 등 80여개 부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9일과 20일 ACC 야외광장 및 뉴스뮤지엄 일대에서 ‘마켓 니어(Near) 디어(Dear)’를 개최한다.

ACC재단과 어반플레이가 공동 주최하고 YMC/아침마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ACC 복합문화·편의시설 ‘파크먼트광주’를 홍보하는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업가와 창작자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마켓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소비문화와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마켓 니어디어’는 셀러존, 체험존, 빈티지존, 푸드존, 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지역 창업가와 창작자, 일반 시민 등 80여개 부스가 참여한다.

셀러존에서는 지역 창작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 창업가들이 의류, 액세서리, 생활소품 등을 판매하며, 체험존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오는 19~20일 ACC 야외광장 일대에서 프리마켓 형식의 ‘마켓 니어 디어’를 개최한다.

ACC재단 제공

빈티지존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개인 SNS나 중고물품 판매 앱 등을 활용해 직거래하는 시민 참여형 부스로 운영된다. 푸드존에는 광주지역의 유명 맛집들이 참여해 먹거리를 선보이고, ACC내 편의시설 입점업체인 ‘티니핑’과 아시아아트마켓의 이벤트 부스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마켓 니어디어’

는 1만 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큰 성황을 이뤘다”며 “복합문화·편의시설 활성화를 통해 ACC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은 편의점과 비건 베이커리 갤러리카페 ‘카페크라운’을 비롯해 라이프스타일 뮤지엄 ‘N:NEWS(뉴스뮤지엄)’, ‘카페, 진정성’, 큐레이션 스토어 ‘개비넷클럽라운지’, 어린이문화원 내 F&B ‘호정당’과 플래그십 스토어 ‘티니핑타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 광산구, 미술 박주영 작가 ‘꿈을 심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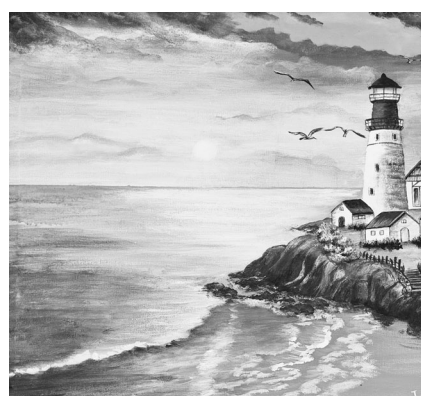
25일까지 임곡복지문화관서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농촌에서도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광산구 임곡동은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농촌동 주민들을 위해 임곡복지문화관에서 미술 박주영 작가의 ‘꿈을 심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꿈을 심다’ 전시는 작가 본인이 작품을 통해 느낀 치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임곡복지



미술 박주영 작 ‘노을’. 광주 광산구 제공

문화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주민

들의 많은 관람을 위해 주말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에 나선다.

미술 박주영 작가는 임곡동에 거주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 작가는 제13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주관 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에서 몇 글씨(캘리그라피) 부문 특별상을 포함해 많은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다.

꿈을 심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임곡동 행정복지센터(062-960-7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